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홍 밝 음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분묘유적 |
| II. 신석기시대말기~청동기시대 초기유적 | 3.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변천과정 |
| III. 청동기시대 전기유적 | IV. 맺음말 |
| 1. 주거유적 | |

I. 머리말

2000년도에 청동기시대 초기가 설정된 이후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초기-전기-중기-후기의 4시기 구분법, 송국리유형을 후기로 설정한 초기-전기-후기의 3시기 구분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초기로 편년되는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치가 적고 북한지역의 편년자체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도 있다(김장석 2010). 또한 최근에는 전기 후반에 묘제가 확인되고 주거지도 전기의 점상이나 열상구조에서 면상구조로의 변화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전기 후반을 중기로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논문도 발표되었다(배진성 2012).

필자는 각목돌대문토기를 이른 시기로 설정하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는 연구자가 없고, 전국에서 확인 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토기 등과 공반되어 확인되는 유적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 청동기시대 초기를 설정하고자한다.

전남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조-전기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김규정(2011), 홍밝음(2010) 등에 의해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자료가 부족하다. 최근에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 청동기시대 초기가 일부 지역에서는 병행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천선행 2007). 따라서 여기에서는 호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

의 유적을 살펴보고 이후 청동기시대 전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신석기시대 말기-청동기시대 조기유적

신석기시대 말기는 이중구연토기로 대표된다. 이중구연토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봉계리 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토기가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공감하고 있다(이동주 2006; 천선행 2010; 하인수 2006). 이중구연토기의 변화관계를 보면 이중구연 구순 상면이 뽕족한 것에서 면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천선행 2010), 영남내륙지역에서 발생해서 호남지역으로 전해진다.

전남지역에서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광주 노대동, 순천 마륜, 패총 유적 등이 있다. 천선행(2010)은 호남지역에 이중구연토기가 유입된 시기를 말기 후반으로 보았고, 송현경(2012)은 말기 전반으로 파악하였다. 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AMS가 측정된 광주 노대동유적을 살펴보면 이중구연토기는 1호 수혈에서 2점, 2호 수혈에서 3점, 집석유구에서 18점이 출토되었다. 신경철이 2010년에 분류한 이중구연형태분류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1호 수혈에서는 C형 2점, 2호 수혈에서는 D형 3점, 집석유구에서는 A형 1점, B형 2점, C형 7점, D형 6점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형태가 A형에서 D형에 이르기까지 출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성탄소연대는 1호 수혈에서 BP 4130±50과 BP 4140±50로 측정되었다. AMS측정 결과와 함께 이중구연의 형태가 A형에서 D형까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신석기시대 말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순천 마륜유적에서도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토기와 원형 점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중구연 직하에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구연부의 평면형태나 AMS 자료로 볼 때 말기 후반으로 여겨진다. 순천 마륜유적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는 BP 3010±40으로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와 중복되어 확인된다.

광주 노대동유적에서 측정된 AMS자료와 이중구연토기를 볼 때 영남지역에서 전남지역으로 이중구연토기의 확산은 신석기시대 말기전반부터 이루어졌으며, 순천 마륜유적을 볼 때 신석기시대 말기후반까지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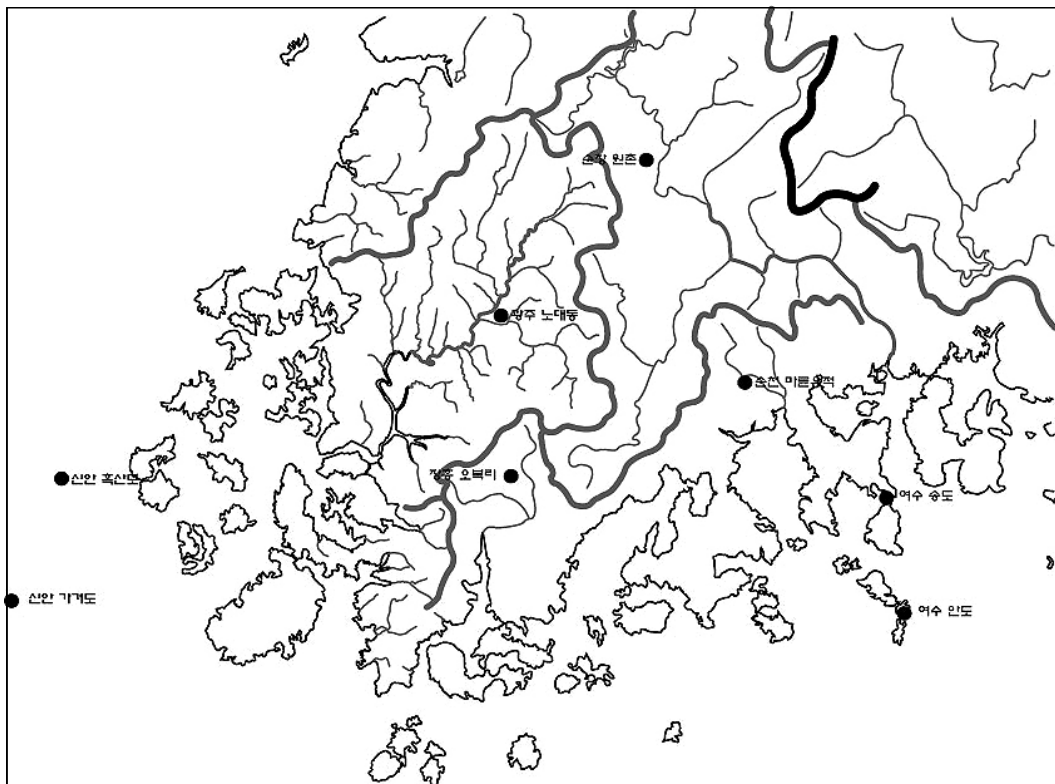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순창 원촌유적이 대표적이다¹⁾.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주거지 중앙에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고 내부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주거지

1) 행정구역상 전북에 포함되지만 섬진강수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변으로는 신석기시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구연이 외반된 봉계리식토기와 점열문토기, 집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각목돌대문이 출토된 유적은 순창 원촌유적만 있고 AMS 자료 등이 측정되지 않아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목돌대문토기가 대체로 기원전 15~14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천선행 2005; 김재운 2004) 순창 원촌유적도 그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가 공반해서 출토된 예는 없다. 또한 AMS 자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석기시대 말기와 청동기시대의 조기의 동시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와 즐문토기가 일정정도 공존하는 것이 절대연대에서 확인되고(천선행 2007),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순천 마륜유적에서 측정된 AMS자료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진주 대평리 옥방 D 지구 5호 주거지에서 측정된 AMS 자료를 볼 때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는 일정 시기 동안 병행한다고 여겨진다.



〈그림 1〉 호남지역 신석기시대 말기유적 분포도

표 1. 신석기시대 말기 유적

유적	성격	참고문헌
장흥 오복리	바위그늘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남원 대곡리	유물산포지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광주 노대동	수혈유구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순천 마륜	주거지 · 주변수습유물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예정)
대흑산도	패총	최성락 1988
돌산 송도 I	패총	국립광주박물관 1989
신안 가가도 패총	패총	국립광주박물관 2006

III. 청동기시대 전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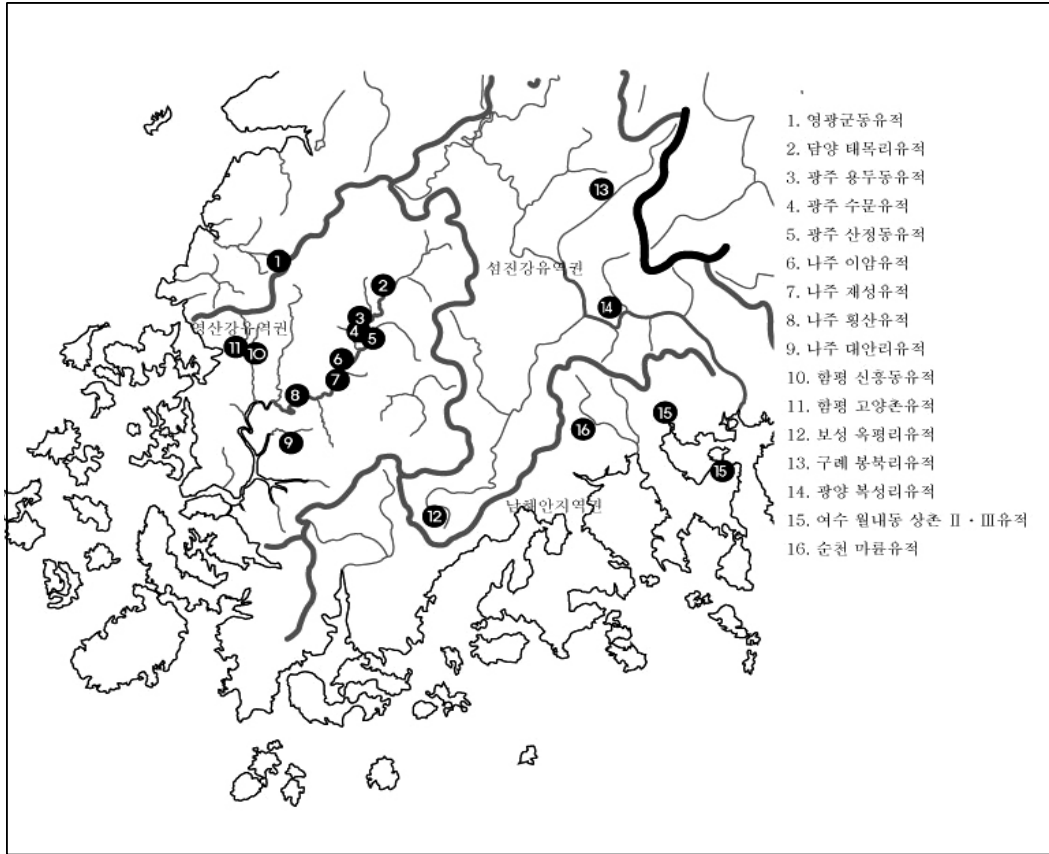
1. 주거유적

1) 주거유적의 분포

전남지역에서는 2012년까지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이 17개유적 52기가 조사되었다. 수계로 보면 영산강유역권에서 11개소 37기, 섬진강유역권에서 2개소 5기, 남해안지역권에서 4개소 10기가 확인되었다.

(1) 영산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유적은 11개소로 영광 군동유적, 담양 태목리유적, 광주 산정동유적, 광주 수문유적, 광주 용두동유적, 나주 횡산유적, 나주 이암유적,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 나주 대안리유적, 함평 신흥동유적, 함평 고양촌유적이 있다. 주거지는 거의 모두 평지성 구릉에 입지하지만 담양 태목리 1호는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원형, 장방형, 세장방형, 초세장방형이 모두 확인되지만 장방형 주거지가 다수를 점한다. 노지는 토광형(무시설)과 위석식 모두 확인되지만 토광형(무시설)이 많다. 주혈은 거의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지만 정연한 형태로 확인되는 주거지는 광주 수문 2호·2-1호 밖에 없다. 벽구와 벽체시설도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지만 구 내부에 벽체시설이 정연하게 확인되는 주거지는 담양 태목리 1호, 광주 수문 2호·2-1호뿐이다.



〈그림 2〉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및 생활유적 분포도

(2) 섬진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유적은 2개소로 구례 봉북리유적, 보성 옥평리유적이 있다. 구례 봉북리유적은 충적지에 입지하고 보성 옥평리유적은 산지성 구릉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초세장방형으로 다양하지만 장방형 주거지가 다수이다. 노지는 무시설(토광형)이 확인되며 벽구는 보성 옥평리 1호에서 확인되었다.

(4) 남해안지역권

남해안지역권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유적은 4개소로 광양 복성리유적과 여수 월내동 상촌II유적, 여수 월내동 상촌III유적, 순천 마륜유적이 있다. 순천 마륜유적만 충적지에 입지하고 나머지 주거지는 평지성 구릉에 입지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세장방형이 확인되지만 장방형 주거지가 다수를 점한다. 노지는 여수 월내동 상촌 II유적과

여수 월내동 상촌 III유적 그리고 순천 마륜유적에서 모두 확인이 되었다. 노지의 형태는 토광형이다. 순천 마륜유적에서는 저장공으로 보이는 내부시설이 1지구 1호, 1지구 3호, 2지구 1호, 2호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1지구 2호도 파괴가 되지 않았다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벽체시설 또한 순천 마륜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1지구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2지구 1호에서만 확인되었다.

〈표 2〉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제원표(홍박음, 2010b 수정)

지역권	유적명	호수	규모(cm)				노지		저장공	작업공	주혈	초석	벽체시설	구	참고문헌
			장축	단축	장폭비	면적	개수	형태							
영산강유역권	영광 군동	A-1호	448	(290)	·	·	·	·	·	·	·	·	·	·	최성락 외 2001
		A-2호	444	265	1.7	11.8	1	무시설	×	×	○	×	×	○	
		A-3호	496	300	1.7	14.9	1	무시설	2?	×		×	×	×	
		A-4호	420	324	1.3	13.61	1	무시설	2?	×	○	×	×	×	
		A-5호	376	296	1.3	11.1	1	무시설	×	×	×	×	×	×	
		A-6호	(166)	300	·	·	1	무시설	×	×	×	×	×	×	
	담양 태목리	20호	1802	836	2.2	150.6	2	석상 위석식	×	×	×	○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21호	620	436	1.4	27.0	1	석상 위석식 ²⁾	·	·	○	○	×	×	
	광주 산정동	1호	846	(340)	2.5	28.8	2	토광형	×	×	○	×	×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수문	1호	1500	(245)	·	·	5	무시설	×	×	○	×	×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2호	1860	(360)	·	·	5	무시설 ³ 토광형 ²	2?	×	○	×		○	
		2-1호	1060	(140)	·	·		·	·	·		×		○	
	광주 용두동	1호	(740)	(320)	·	·	2	무시설	×	×	○	×	×	×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2호	620	380	1.6	23.6	1	무시설	×	×	×	×	×	○	
		3호	360	330	1.1	11.9	1	무시설	×	×	×	×	×	×	
		4호	310	290	1.1	9.0	1	무시설	×	×	×	×	×	×	
		5호	505	(365)	·	·	1	무시설	×	×	×	×	×	×	
		6호	620	(220)	·	·	1	무시설	×	×	×	×	×	○	
		7호	(463)	520	·	·	1	무시설	×	×	○	×	×	○	
		8호	275	(240)	·	·	1	무시설	×	×	×	×	×	×	
		9호	740	(320)	·	·	1	무시설	·	·	○	×	×	○	
	나주 횡산	1호	874	572	1.5	50	3	토광형	4	×	○	×	○	○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09
	나주 이암	1호	(692) ³⁾	520	·	·	·	·	·	·	○	×	×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1230	430	2.9	52.9	6	무시설	2	×	○	×	○	○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10
	나주 대안리	1호	(150)	·	·	·	1	무시설	·	·	·	·	·	○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09

지역권	유적명	호수	규모(cm)				노지		저장공	작업공	주혈	초석	벽체시설	구	참고문헌	
			장축	단축	장폭비	면적	개수	형태								
영산강유역권	함평 신흥동	2호	714	370	1,9	26,4	×	×	×	×	○	×	×	×	대한문화유산 연구센터 2011	
		3호	244	244	1,0	6,0	1	무시설	×	×	×	×	×	×		
		4호	306	(222)			1	소토부	×	×	×	×	×	×		
		5호	1106	546	2,0	60,3	1	위석식	×	×	×	×	×	×		×
							2	무시설								
		6호	284	208	1,4	5,9	1	무시설	×	×	×	×	×	×		
		7호	658	276	2,6	19,6	2	무시설	×	×	○	×	×	×		
		8호	300	286	1,0	8,6	1	무시설	×	×	×	×	×	×		
		9호	(556)	324	·	·	2	무시설	×	×	·	·	·	·		
	10호	(276)	204	·	·	1	소토부	×	×	×	×	×	×			
함평 고양촌	2호	558	406	1,4	22,7	1	무시설	×	×	○	×	×	○	李暎澈 · 李恩政 2005		
	5호	(155)	262	·	·	1	무시설	×	×	×	×	×	×			
섬진강유역권	구례 봉북리	1호	560	520	1,1	29,1	×	×	×	×	×	×	×	金貞愛 2007		
		2호	386	295	1,3	11,4	×	×	×	×	×	×	×			
		3호	454	366	1,2	16,6	1	토광형?	×	×	×	×	×		×	
	보성 옥평리	1호	1590	520	3,1	82,7	4	무시설	1	×	×	×	×	○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09	
		2호	340	290	1,2	9,9	×	×	×	×	×	×	×	×		
남해안지역권	광양 복성리	1호	340	250	1,4	8,5	×	×	×	×	×	×	×	호남문화재 연구원 2009		
		3호	320	206	1,6	6,6	×	×	×	×	×	×	×			
	여수 월내동 상촌II	1호	1144	480	2,4	54,9	×	×	×	×	×	×	×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12		
		2호	582	328	1,8	19,1	2	무시설	×	×	×	×	×		×	
	여수 월내동 상촌III	1호	1000	(496)	2,0	49,6	1	무시설	1	×	×	×	×	×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12	
	순천 마륜유적	1-1호	820	510	1,6	41,8	1	무시설	1	×	×	×	×	×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11	
		1-2호	698	410	1,7	28,6	1	무시설	×	×	×	×	×	×		
		1-3호	765	488	1,6	37,3	1	무시설	1	×	×	×	×	×		
		2-1호	544	306	1,7	16,6	2	토광형	2	×	×	×	○	×		
2-2호		674	490	1,4	33	1	무시설	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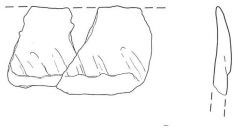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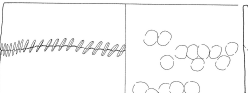
필자는 2010년 논문에서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공열문토기나 구순각목문토기 보다 시기 변화를 보다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중구연단사선토기에서 확인되는 단사선태시문위치와 이중구연의 길이로 시기를 편년하였다. 이중구연단사선토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명목형 속성⁴⁾은 단사

2) 바닥에 석재가 있어 석상위석식노지로 추정된다.

3) ()는 주거지가 파괴되어 주거지의 잔존 부분만을 측정된 것이다.

4) 명목형 속성은 자료값의 크기나 순서에 대한 의미가 없고 단지 자료값 자체의 이름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이중구연단사선토기에서 단사선이 시문되는 위치

A식	B식	C식
		
나주 매성리 재성1호 주거지	순천 마륵 I-3호 주거지	광주 산정동 1호 주거지

선시문위치이며 연속형 속성⁵⁾은 이중구연길이⁶⁾이다.

명목형 속성인 단사선시문위치는 이중구연부 상면에 단사선이 시문되는 것과 이중구연부 상면과 동체부에 걸쳐 시문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가 함께 시문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중구연부 상면에 시문되는 것을 A식, 이중구연부 상면에 시문된 것과 이중구연부와 동체부에 걸쳐서 시문된 것이 혼재하는 것을 B식⁷⁾, 이중구연부 상면~동체부에 걸쳐 시문되는 것을 C식으로 구분하였다(그림 4).

또한 연속형 속성인 이중구연길이는 0.0~2.0cm, 2.0~4.0cm, 4.1~5.7cm, 5.8~7.5cm에서 각각 정상분포곡선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0.0~2.0cm는 I식, 2.0~4.0cm는 II식, 4.1~5.7cm는 III식, 5.8~7.5cm는 IV식으로 구분하였다⁸⁾. 새로 조사된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토기는 II식, 순천 마륵유적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토기는 대체로 II식, III식과 IV식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중구연단사선토기의 형식별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필자는 2010년 논문을 발표할 당시 나주 이암 1호 와 나주 대안리 1호는 주거지 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지만 두 유적에서 측정된 AMS연대가 B.P. 2900~300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가 다른 지역보다 늦지 않다고 보았다. 2012년에 발간되거나 발간예정인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과 순천 마륵유적을 볼 때 이러한 근거가 뒷받침된다. 즉, 2010년 논문에서는 전남지역에서는 II식이 출토되지 않아 호남 3기부터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영산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새롭게 발굴조사된 위의 두 유적의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IIA식이기 때문에 만경강유역권에서 영산강유역 그리고 남해안지역권으로 상당히 빠르게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확산된 것을

5) 연속형 속성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6) 이중구연길이는 구순에서 이중구연까지의 길이이다.
 7) 이는 의도적으로 이중구연부 상면과 이중구연부 상면에서 동체부까지 시문되는 경우이다.
 8) 전남지역의 이중구연토기는 전북지역을 거쳐서 유입되기 때문에 이중구연단사선토기의 도수분포도를 홍밝음(2010) 논문의 것을 인용한다.

〈표 2〉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제원표 (홍밖음, 2010b 수정)

유적명	호수	보고서 도면번호	이중구연 길이	단사선 길이	단사선 간격	구연~ 단사선의 길이	단사선 시문위치	토기명
광주 산정동	1호	3	5.1	1.5	0.9	4.2	C	이중구연단사선문
광주 수문	1호	2	6.6	1.5	0.3	6.4	C	이중구연단사선문
광주 용두동	22호	실견	6.4	3.2	1.0	5.2	C	이중구연단사선문
			4.4	1.0	0.6	3.7	A	이중구연단사선문
나주 매성리 저성	1호	10	3.0	1.2	0.4	1.8	A	이중구연단사선문
함평 고양촌	2호	132-5	6.2	2.0	0.5	5.6	C	이중구연단사선문
		132-6	6.2	2.0	0.5	5.8	C	이중구연단사선문
	5호	134-25	7.2	1.2	0.3	6.9	C ⁹⁾	이중구연단사선문
함평 신흥동	5호	17	6.6	1.3	2.3	5.3	A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열문
		18-17	5.1	·	·	4.2	A	이중구거치문
보성 옥평	1호	실견	5.5	2.2	0.7	5.0	C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실견	5.0	1.0	0.8	4.8	C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여수 월내동 상촌II	1호	실견	7.0	2.0	1.0	6.0	C	이중구연단사선공열구순각목문
순천 마륜유적	1-2호	실견	4.0	0.7	·	3.5	A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실견	4.6	0.9	0.9	3.5	A	이중구연단사선
		실견	4.2	0.9	1.4	3.0	A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1-3호	실견	5.1	2.0	0.9	4.0	C	이중구연단사선
	1-3호	실견	5.6	1.7	0.6	4.0	B	이중구연단사선공열
	2-2호	실견	5.2	1.4	1.1	4.0	A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중구연길이가 I 식과 II 식인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주로 출토가 되며 이중구연길이가 III 식과 IV 식인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주로 영산강유역권이나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에서 출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논문에서 단사선의 시문위치가 A 식인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주로 만경강유역권에서 출토된다고 보았으나 새로 보고된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이나 순천 마륜유적을 볼 때

9) 도면에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의 이중구연이 희미하여 평면상과 단면상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고자가 보고한 이중구연길이를 계산하면 단사선의 중앙부로 이중구연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이중구연단사선토기 형식별 출토현황(홍밖읍, 2010 수정)

유적명	형식	형식								
		I A식	II A식	II B식	II C식	III A식	III C식	IV A식	IV B식	IV C식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			●1							
순천 마륜 1지구 2호			●1			●3				
광주 산정동 1호							●1			
보성 옥평 1호							●2			
순천 마륜 2지구 2호						●1				
순천 마륜 1지구 3호							●1		●1	
광주 용두동 22호						●1				●1
함평 신흥동 5호						●1		●1		
함평 고양촌 2호										●2
여수 월내동 상촌II 1호										●1
광주 수문 1호										●1
함평 고양촌 5호										●1

A식은 남해안지역권에서도 다수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중구연 길이가 짧고 단사선시문위치가 A식인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출토되며 이중구연길이가 길고 단사선시문위치가 C식인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주로 영산강유역권이나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에서 출토된다.

〈표 4·5〉는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분기별 구연부시문토기의 출토비율과 분기별 구연부시문 문양개수 출토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기 유적은 전남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기의 구연부시문토기는 만경강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시기부터 전남지역에 가락동유형이 유입되기 시작하며, 역삼동유형의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것을 보여준다. 3기가 되면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가장 활발하게 접촉하게 되면서 토기 문양의

〈표 4〉 전남지역 분기별 구연부시문토기 출토비율

토기 분기	토기 부문	구연부시문토기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열문	이중구연 거치문	각목 돌대문 ¹⁰⁾	절상 돌대문	이중 구연	구순 각목문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문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 구순각목문	이중구연 단사선 공열문	단사선 문	단사선 구순각목문	공열 구순각목문
2기	○	(20.0%) (1/5)	(40.0%) (2/5)					(40.0%) (2/5)						
3기	○	(24.5%) (12/49)	(22.4%) (11/49)	(2.0%) (1/49)	(8.2%) (4/49)	(1.4%) (1/49)	(2.0%) (1/49)	(14.3%) (7/49)	(4.1%) (2/49)	(6.1%) (3/49)	(2.0%) (1/49)	(4.1%) (2/49)		(8.2%) (4/49)
4기	○	25% (1/4)	25% (1/4)					25% (1/4)					25% (1/4)	

10) 담양 태목리 1호 주거지에서는 돌대문만 형성되어 있고 각목이 없는 무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에 포함시켜 파악하였다.

〈표 5〉 분기별 구연부시문 문양개수 출토비율

분기 \ 시문개수	1	2	3	4
2기	80.0%(4/5)	20.0%(1/5)	0	0
3기	44.9%(22/49)	42.9%(21/49)	6.1%(3/49)	6.1%(3/49)
4기	50%(2/4)	50%(2/4)	0	0

복합도가 증가하고 구연부에 시문되는 문양 개수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기가 되면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며, 4기 까지 가락동유형의 요소와 역삼동유형의 요소가 잔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양의 개수가 줄어든 이유는 송국리유형과의 접촉을 통해 토기의 무문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석기는 석촉, 석검, 지석, 방추차, 어망추 등이 있다. 이 중 시간성을 반영하는 석기는 석촉과 석검이다. 석검은 광주 수문 2호와 나주 횡산 1호에서 출토되었다. 광주 수문 2호 출토품은 이단병식석검 병부편으로, 전기에 주로 확인되는 형태이다. 나주 횡산 1호에서 출토되는 것은 석검 병부편으로 추정된다.

호남지역에서 완형으로 출토되거나 일부 파손되었더라도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 전기 석촉은 13점으로 삼각만입촉, 일단경촉이 있다. 삼각만입촉은 광주 수문 1호, 2호¹¹⁾, 나주 매성리 채성유적 1호, 함평 신흥동 5호, 함평 고양촌 5호, 광주 용두동 1호·2호·4호·7호에서 9점이 출토되었다. 호남 2기인 나주 매성리 채성유적에서부터 호남 3기인 광주 수문 1호와 2호, 광주 용두동 1호·2호에서 그리고 4기의 유적인 함평 고양촌 5호 그리고 광주 용두동 4호와 7호에서도 삼각만입촉이 출토되는 것을 볼 때 호남 II기부터 호남 IV기까지 삼각만입촉이 출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경촉은 구례 봉북리 1호와 나주 횡산 1호에서 완제품이 출토되었다. 나주 횡산 1호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와 공반하여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AMS측정자료와 익산 영등동 I-3호 주거지와 유사한 점을 볼 때 호남 II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례 봉북리 1호는 주거지의 평면형태 등을 볼 때 호남 IV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촉은 삼각만입촉과 일단경촉이 있고 삼각만입촉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주 횡산 1호는 호남 II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단경촉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는 노지를 비롯하여 기둥받침, 저장공, 벽구 등이

11) 광주 수문 2호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의 형태 등을 볼 때 광주 수문 1호 주거지와 같은 시기로 여겨진다.

〈표 6〉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 형태·규모 및 내부시설(홍밖음, 2010 수정)

유적 번호	유적명	호수	평면형태 ¹³⁾				규모			노지개수	기동받침	저장공	벽구	벽체시설
			1	2	3	4	1	2	3					
1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			●		6	무	유	유	유
2	광주 산정동	1호		●			●			2	유	무	×	×
3	보성 옥평	1호			●			●		4	무	유	ㄱ	×
4	남원 고죽동	1호			●			●		1	유	무	×	×
5	광주 용두동	6호		●			●			2	유	무	ㄷ, ㄹ	×
6	함평 신흥동	5호		●				●		3	무	무	×	×
7	함평 고양촌	2호		●			●			1	유	무	-	×
8	여수 칼텍스	II-1호			●			●		0	무	무	×	×
9	광주 수문	1호				●		●		5	유	무	×	×
10	순천 마륜	1-2호		●						1	무	무	×	×
11	순천 마륜	1-3호		●						1	무	유	×	×
12	순천 마륜	2-2호		●						1	무	유	×	×
13	함평 고양촌	5호	●					●		1	무	무	×	×

확인된다. 2010년 논문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제외하고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시설들은 시기적은 변화관계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지 평면형태에서는 시기적으로 변화관계가 나타나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일반적으로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초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¹²⁾.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를 통해 주거지의 변화관계를 살펴보면, 장방형 주거지에서는 거의 모든 형식의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II식, III식, IV식이 출토된다. II식이 출토되는 세장방형 주거지는 나주 매성리 재성 1호이며, III식과 IV식이 출토되는 세장방형 주거지는 보성 옥평리 1호, 여수 월내동 상촌II-1호이다. 초세장방형 주거지는 광주 수문 1호뿐인데 IV식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장방형 주거지는 전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지속적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중구연길이가 길어질수록 주거지가 세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함평 고양촌 5호는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장폭비가 거의 1:1인데 IVC식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출토되는 것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전통과는 다른 문화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2) 1.0~1.2 미만을 방형, 1.2~2.4를 장방형, 2.5~3.4를 세장방형, 3.5~4.2를 초세장방형으로 한다.
 13) 주거지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초세장방형을 순서대로 1, 2, 3, 4로 하며 주거지 규모도 소형, 중형, 대형을 순서대로 1, 2, 3으로 표시하였다.

〈표 7〉 이중구연단사선토기 형식과 주거지 평면형태의 상관관계

형식 평면형태	IIA	IIB	IIC	IIIA	IIIC	IVA	IVB	IVC
장방형	10(1)			5(1),12,6(1) 10(2), 11(1)	2	6(1)	11(1)	5(1),7
세장방형	1			4(1)	3(2)		4(1)	4(1),8
초세장방형								9
방형								13

〈표 7〉에 기재된 숫자는 〈표 6〉의 유적번호이며 ()로 표시한 숫자는 각 형식마다 출토된 이중구연단 사선토기의 개수이다. 표시가 되지 않은 유적은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1점 출토된 경우이다.

〈표 89〉은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는 고목효과 등 그 신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안승모 2012) 여기에서는 획기를 나누는데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였다.

〈표 8〉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자료 1

유적명	호수	출토위치	B,P 연대					중심 연대
			B,P	95.4%	B,C	68.2%	B,C	
담양 태목리	1호	·	B,P 2980±60	95.4%	B,C 1390~1050	68.2%	B,C. 1300~1120	·
광주 수문	1호	·	B,P 2920±60	95.4%	B,C 1310~930	68.2%	B,C. 1220~1020	B,C. 1120
	2호	·	B,P 2690±60	95.4%	B,C 980~770	68.2%	B,C. 895~805	B,C. 880
나주 횡산	1호	1	B,P 3060±60	95.4%	B,C 1450~1120	68.2%	B,C. 1420~1260	B,C. 1290
		2	B,P 2860±50	95.4%	B,C 1210~900	68.2% 62.4%	B,C. 1120~970	B,C. 1060
		3	B,P 2930±50	95.4%	B,C 1310~980	68.2% 65.4%	B,C. 1220~1050	B,C. 1150
		4	B,P 2880±50	95.4% (94.0%)	B,C 1220~920	68.2%	B,C. 1130~970	B,C. 1070
나주 이암	1호	주거지 상층	B,P 2960±50	95.4% (92.8%)	B,C 1320~1010	68.2% (65.8%)	B,C. 1270~1110	B,C. 1170
		주거지 북편 벽면	B,P 3010±50	95.4%	B,C 1410~1110	68.2% (53.2%)	B,C. 1320~1190	B,C. 1260
		주거지 바닥 중앙부	B,P 3070±50	95.4%	B,C 1450~1190	68.2% (66.5%)	B,C. 1410~1290	B,C. 1320
나주 대안리	1호	·	B,P 2990±60	95.4%	B,C 1400~1040	68.2% (66.3%)	B,C. 1320~1120	B,C. 1220
광양 복성리	1호	바닥	B,P 2840±50	95.4% (93.4%)	B,C 1200~890	68.2% (67.0%)	B,C. 1070~910	B,C. 1050
		퇴적토	B,P 2830±50	95.4%	B,C 1130~840	68.2%	B,C. 1050~910	B,C. 990
광주 용두동	1호	·	B,P 2980±50	95.4%	B,C 1390~1050	68.2%	B,C. 1300~1120	B,C. 1220
	4호	·	B,P 2940±60	95.4% (92.9%)	B,C 1320~970	68.2%	B,C. 1260~1050	B,C.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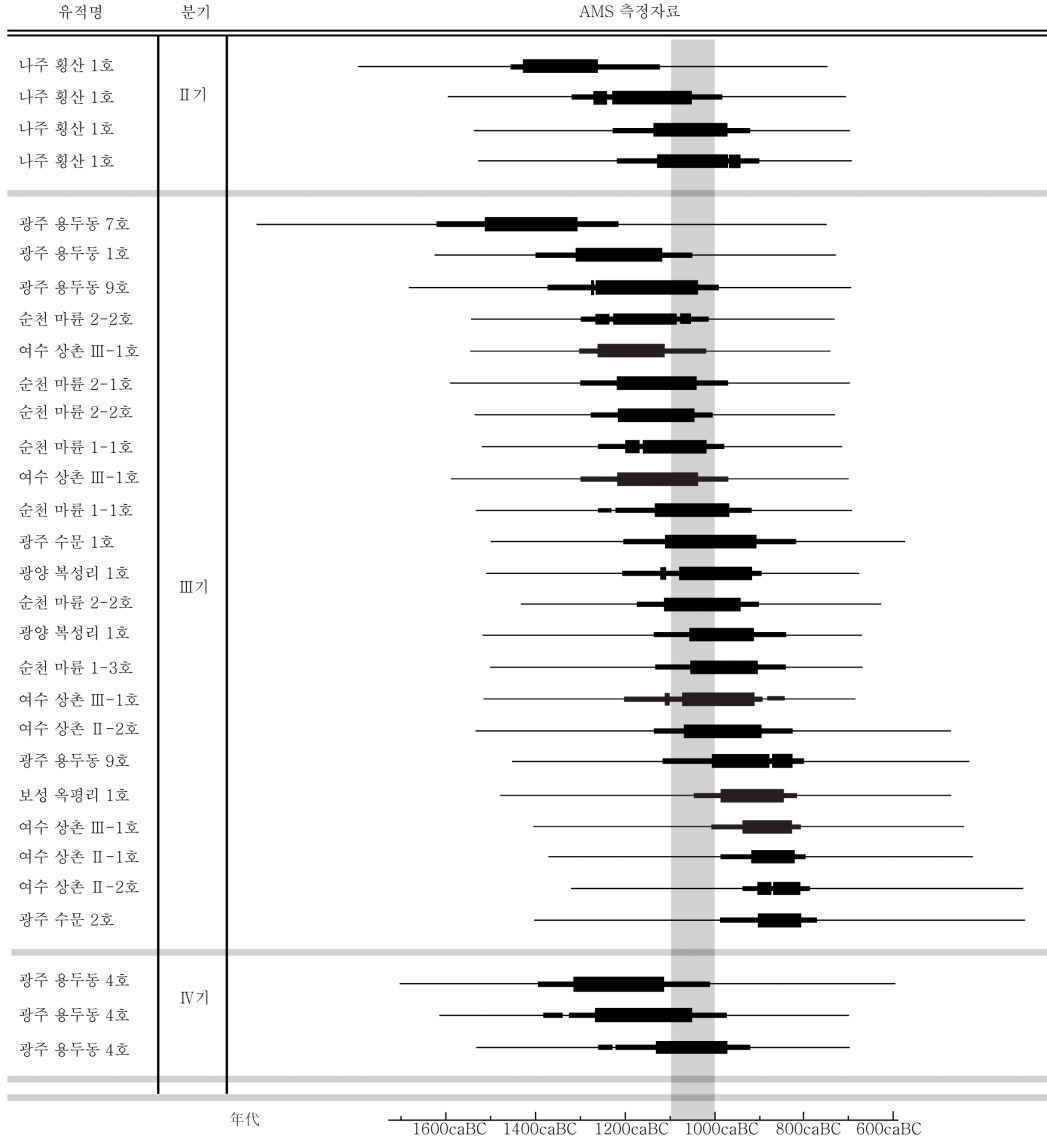
		·	B,P 2970±60	95.4%	B,C 1390~1010	68.2%	B,C. 1310~1110	B,C. 1200
		·	B,P 2880±50	95.4% (94.0%)	B,C 1220~920	68.2%	B,C. 1130~970	B,C. 1070
	7호	·	B,P 3150±80	95.4%	B,C 1620~1210	68.2%	B,C. 1510~1310	B,C. 1420
	9호	·	B,P 2960±60	95.4%	B,C 1380~1000	68.2% (66.1%)	B,C. 1270~1050	B,C. 1190
		·	B,P 2790±60	95.4%	B,C 1120~810	68.2% (57.0%)	B,C. 1010~890	B,C. 970
보성 옥평리	1호	·	B,P 2770±50	95.4%	B,C 1040~810	68.2%	B,C. 980~840	B,C. 910
여수 상촌II	1호	·	B,P 2720±50	95.4%	B,C 980~790	68.2%	B,C. 910~815	B,C. 862
	2호	·	B,P 2680±50	95.4%	B,C 930~780	68.2% (48.9%)	B,C. 860~800	B,C. 830
		·	B,P 2820±60	95.4%	B,C 1130~820	68.2%	B,C. 1062~890	B,C. 975
여수 상촌 III	1호	·	B,P 2840±50	95.4% (93.4%)	B,C 1200~890	68.2% (67.0%)	B,C. 1070~910	B,C. 990
		·	B,P 2950±40	95.4%	B,C 1300~1020	68.2%	B,C. 1260~1110	B,C. 1185
		·	B,P 2740±40	95.4%	B,C 980~800	68.2%	B,C. 920~830	B,C. 875
		수혈	B,P 2920±50	95.4% (93.4%)	B,C 1300~970	68.2%	B,C. 1220~1040	B,C. 1130
순천 마륜	1-1호	남벽	B,P 2910±40	95.4%	B,C 1260~980	68.2% (62.3%)	B,C. 1160~1020	B,C. 1090
		남벽	B,P 2880±50	95.4% (94.0%)	B,C 1220~920	68.2%	B,C. 1130~970	B,C. 1050
	1-3호	·	B,P 2820±50	95.4%	B,C 1130~840	68.2%	B,C. 1050~900	B,C. 980
	2-1호	·	B,P 2920±50	95.4%	B,C 1300~970	68.2%	B,C. 1220~1040	B,C. 1130
	2-2호	·	B,P 2880±60	95.4%	B,C 1120~820	68.2% (59.6%)	B,C. 1030~890	B,C. 960
		·	B,P 2940±40	95.4%	B,C 1290~1010	68.2% (57.8%)	B,C. 1220~1080	B,C. 1150
		·	B,P 2920±40	95.4%	B,C 1270~1000	68.2% (57.8%)	B,C. 1210~1040	B,C. 1130

전남지역에서 1기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2기 유적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 자료로는 나주 황산 1호와 담양 태목리 1호가 있는데 연대는 대체로 B.C.12~11세기이다. 3기는 가락동유형이 영산강유역권이나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광주 수문유적과 광주 용두동유적, 광양 복성리유적, 여수 상촌 II-1호와 2호, 여수 상촌 III-1호, 순천 마륜유적에서 방사성탄소연대가 측정되었는데 그 중간값은 대체로 B.P.2900~2800년 사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B.C.11~10세기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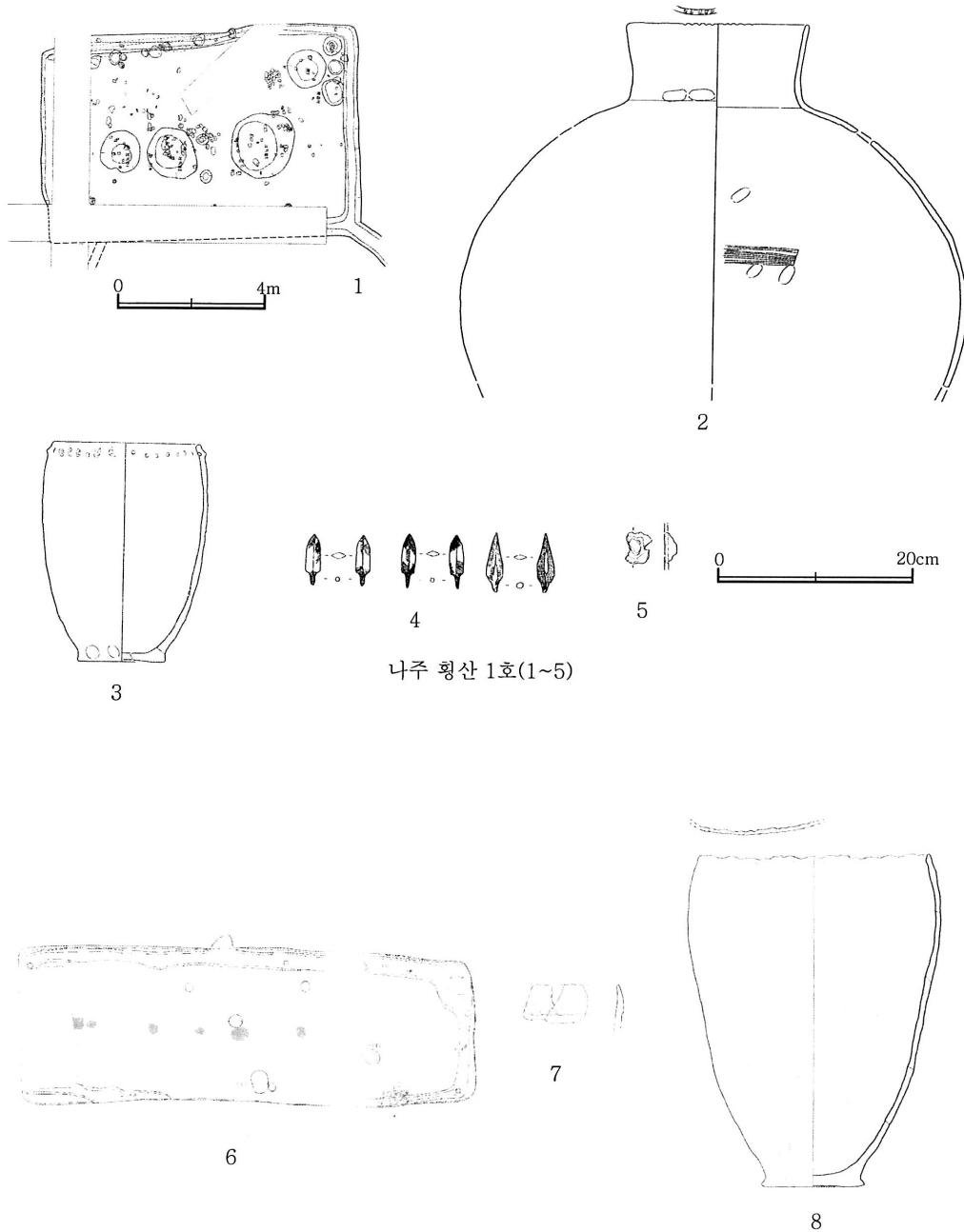
4기의 유적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자료로는 광주 용두동 4호가 있는데 중간값이 B.P.3000~2900년 사이에 속해 있다. 따라서 방사성탄소연대로만 본다면 3기보다 좀 더

이른 시기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4기는 이미 송국리유형이 등장한 시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심연대는 B.C.10~8세기로 추정해둔다¹⁴⁾.

〈표 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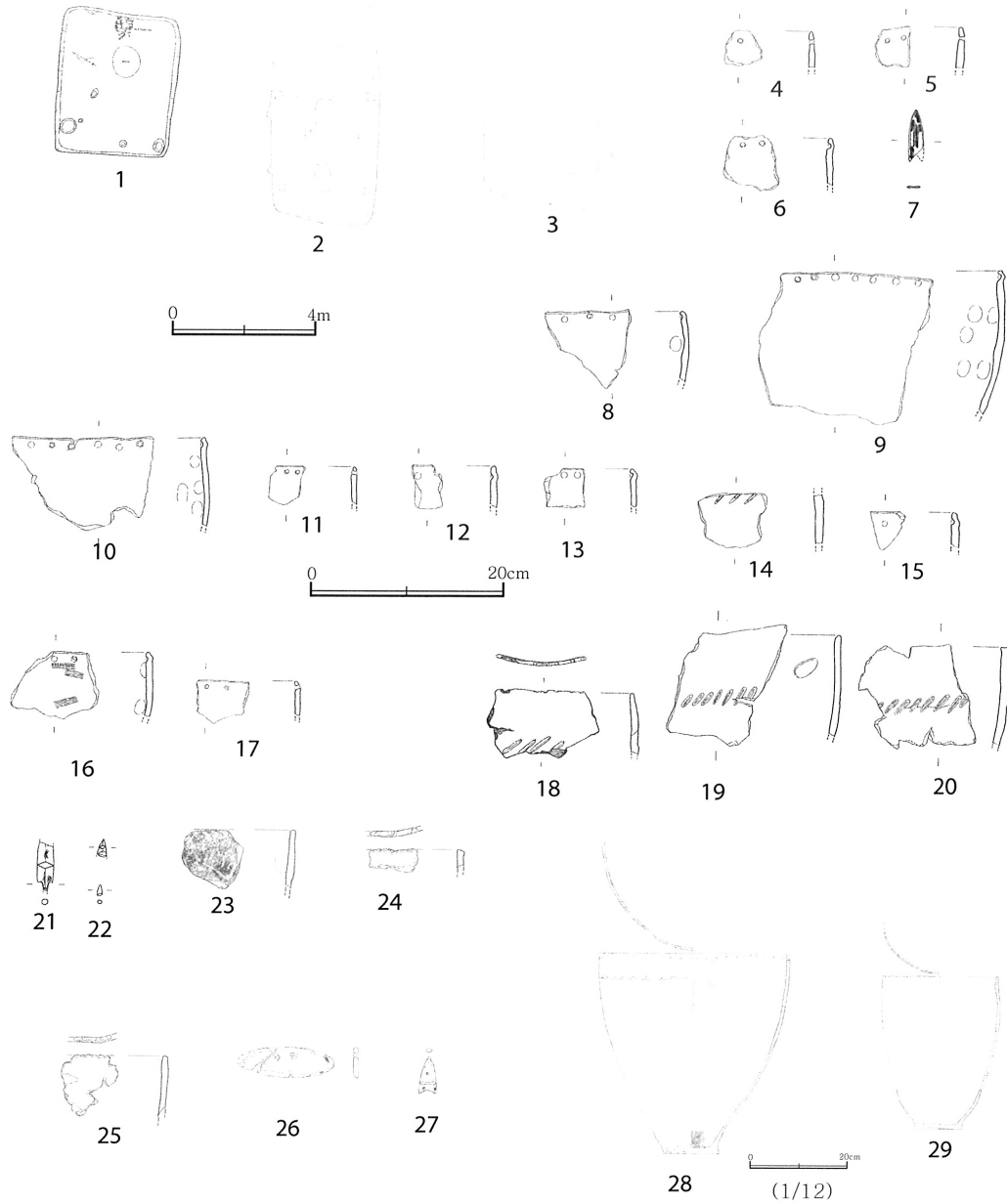
14) 나주 이암 1호와 나주 대안리 1호는 주거지 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유적에서 측정된 AMS연대가 B.P. 2900~300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가 다른 지역보다 늦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산강유역에서 좀더 이른 시기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주 황산 1호(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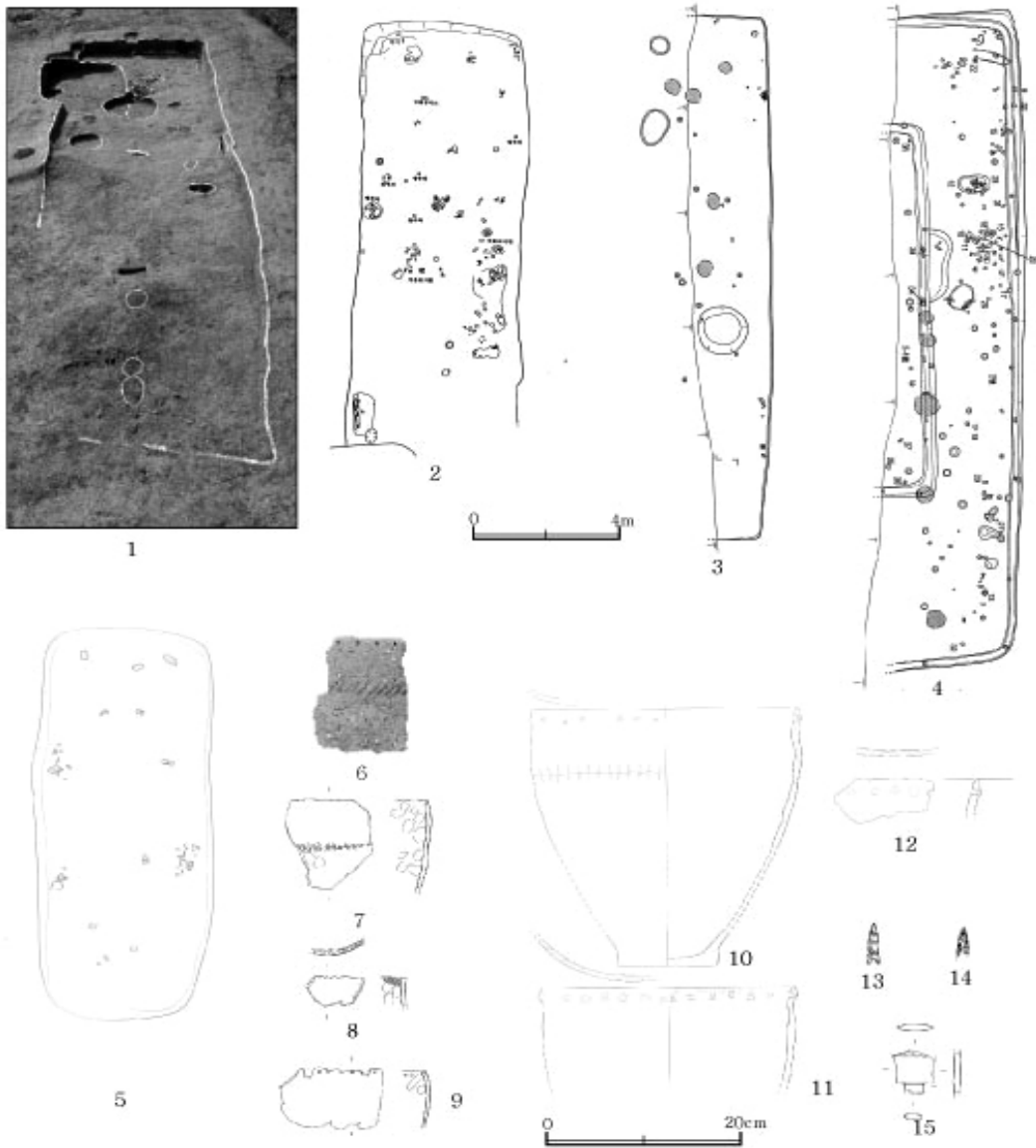
나주 매성리 재성 1호(6~8)

그림 4.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2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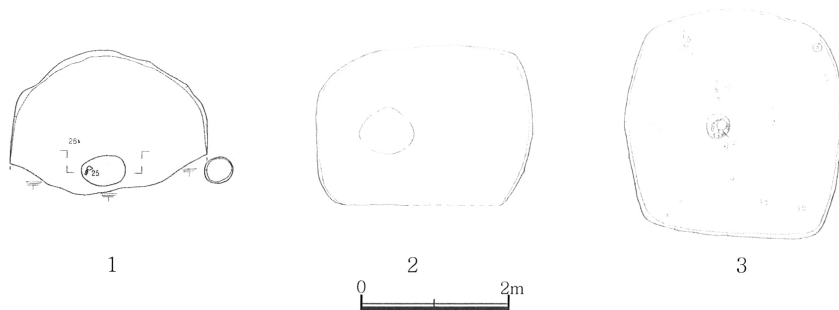
1. 영광 군동 A-4호 2. 함평 신흥동 7호 3. 함평 신흥동 9호 4~7. 광양 북성리 3호 8~17. 광양 북성리 1호
 18. 영광 군동 A-4호 20~22. 함평 고양촌 5호 23~29. 함평 신흥동 5호

그림 5.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3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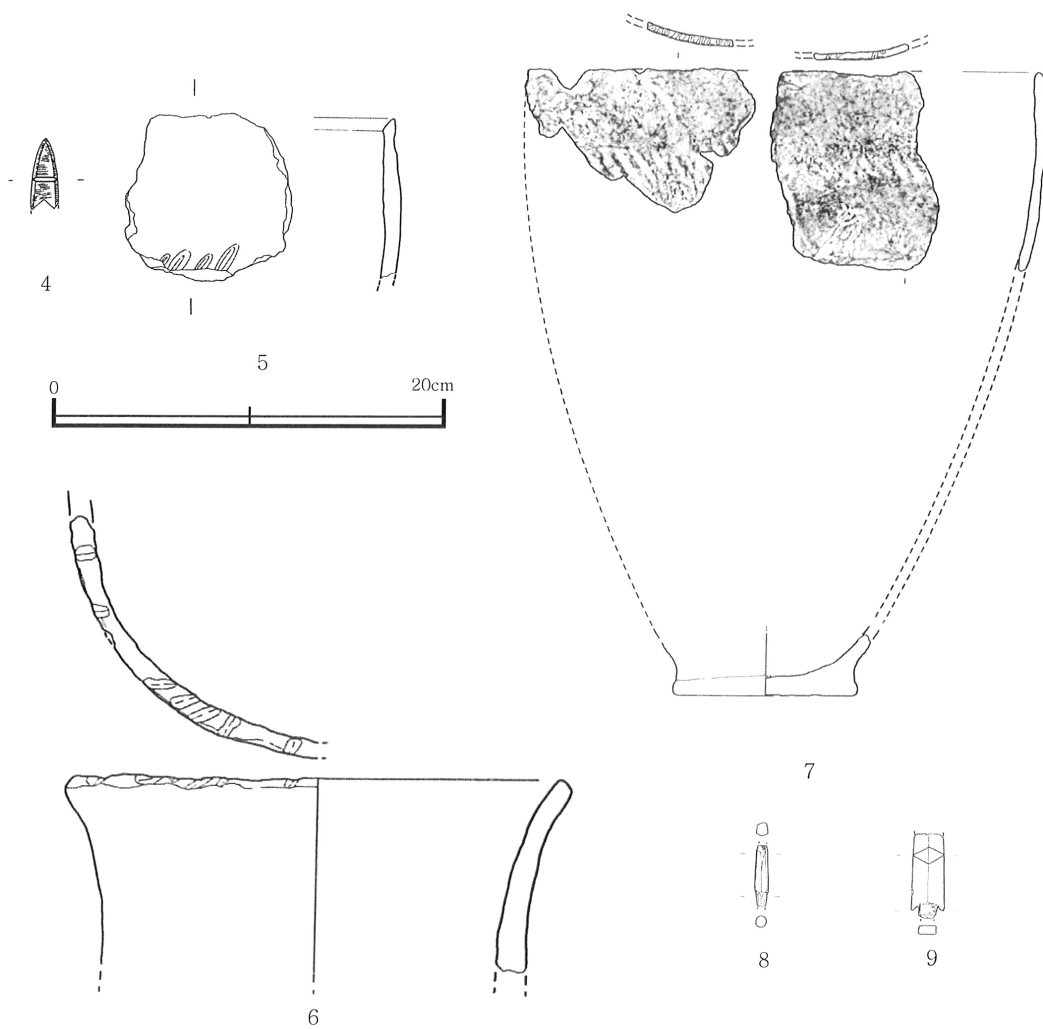


1. 보성 옥평리 1호 2. 남원 고죽동 1호 3. 광주 수문 1호 4. 광주 수문 2호, 5 여수 월내동 상촌 II-1호
 6. 보성 옥평리 1호, 7~8. 광주 수문 1호 9. 광주 수문 2호 10~12 여수 월내동 상촌 II-1호
 13 광주 수문 1호 14. 광주 수문 2호 15. 광주 수문 2호

그림 6.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3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1. 함평 고양촌 5호 2. 함평 신흥동 6호 3. 함평 신흥동 8호



4~5. 함평 고양촌 5호 6. 함평 신흥동 8호 7~8. 함평 신흥동 8

그림 7.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4기 주거지와 출토유물

이러한 관계는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 중복관계가 확인된 사례로는 보성 옥평리 1호와 2호, 함평 신흥동 2호와 3호, 함평 신흥동 7호와 8호가 있다. 보성 옥평리 2호는 1호의 북서장벽을 파괴하고 축조되었고 함평 신흥동 3호는 2호의 북서쪽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또한 함평 신흥동 7호의 북동쪽 단벽을 파괴하고 8호가 축조되었다. 보성 옥평리 1호와 함평 신흥동 2호, 함평 신흥동 7호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로 보아 3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고 축조한 보성 옥평리 2호와 함평 신흥동 3호, 함평 신흥동 8호는 3기보다 좀 더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2. 분묘유적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분묘 연구는 송국리단계에만 집중되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전기 분묘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전기 분묘는 크게 토광묘, 석관묘, 지석묘, 주구묘, 석곽묘로 나누어 지는데, 그 시작은 전기 주거지 편년과 절대연대 측정 자료로 보아 기원전 12세기부터 조성되었다(이영문 2011). 전남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묘제로는 토광묘와 석곽묘가 있다.

영산강유역에서는 나주 장동리 토광묘(전남문화재연구원 2011)가 발굴조사되었다. 1호 토광묘에서는 단도마연토기, 삼각만입축 6점, 환옥 2점이 확인되었는데 단경호의 저부는 환저이고, 동체부는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직립구연하다 구순부는 외반한 형태이다.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 삼각만입축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 묘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황재훈(2012)은 최근 섬진강유역의 지석묘를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섬진강유역 지석묘에서 전기로 확정할 수 있는 표지유물이 확인된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무덤에서 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삼각문입축 등 전기 유물이 발견되기때문에 전기부터 지석묘가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김승욱 2006). 남해안의 해안지역에서는 순천 남가(조근우 외 2011)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묘실은 석곽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는 이단병식 석검 1점과 삼각만입축 3점, 이단경축 1점이 일괄로 출토되었다. 출토되는 유물로 볼 때 전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영문(2011)은 고흥 석봉리 지석묘를 전기 지석묘로 파악하였다. 이 지석묘 내부에서는

15) 광주 수문 2호와 2-1호는 중복관계로 보아 2-1호가 2호보다 더 늦게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주 수문 2-1호는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순각목문토기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 없다. 필자는 장축길이와 내부시설로 볼 때 2호와 크게 시간 폭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채문토기가 확인되었는데 그는 채문토기를 전기에 성행한 유물로 보았다. 그러나 채문토기는 청동기시대에 한반도 남부 특히 전남 남해안과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에 나타나는 것으로 후기에 전남 남해안지역으로 확산된다(平郡 達哉, 2012). 즉 채문토기의 변화는 동체부 형태는 구형→횡장구형→타원형으로, 동체부 최대경의 위치는 중위→중하위→하위로 변화하는데 고흥 석봉리 지석묘에서 출토된 채문토기는 동체부가 주머니모양을 띄고, 동부 최대경이 하위에 있는 平郡 達哉 IV식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한다.

분묘유적에 대한 AMS 측정은 <표 10>과 같다. 나주 낭동유적에서는 인골편, 무문토기편, 석검이 출토되었다. 석검은 유경IIa2식(이영문 1997)으로 순천 우산리 내우 40호에서 출토된 석검과 유사하다.

장흥 갈두 II의 10호 지석묘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유경식석촉이 출토되었는데 유경식석촉의 경부가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일단경촉으로 여겨진다. 장흥 신평 5호 지석묘에서는 일단병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석검은 박선영 일단병식석검 B2식(박선영 2004), 이재운 유병IIc식(이재운 2011)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과 공반한다.

여수 상촌 II-2호 묘역지석묘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와 함께 비파형동검 하부가 출토가 되었다.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는 석실의 북단벽 밖에서 출토가 되었으

<표 10>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자료

유적명	호수	출토 위치	B,P 연대 ¹⁶⁾				중심 연대	
			B,P	95.4%	B,C	68.2%		
나주 낭동유적	1호 지석묘	두부	B,P 2880±40	95.4%	B,C 1220~920	68.2%	B,C, 1130~990	B,C, 1060
		흉부	B,P 2800±40	95.4%	B,C 1050~830	68.2%	B,C, 1000~900	B,C, 950
장흥 갈두 II	10호	·	B,P 2820±40	95.4% (90.0%)	B,C 1130~890	68.2%	B,C, 1010~900	B,C, 960
	10호	·	B,P 2790±80	95.4%	B,C 1130~800	68.2%	B,C, 1020~830	B,C, 930
장흥 송정 ¹⁷⁾ 가운 서지구	1호	·	B,P 2820±60	95.4%	B,C 1130~930	68.2% (66.2%)	B,C, 1050~890	B,C, 970
장흥 신평	5호	·	B,P 3000±80	95.4%	B,C 1430~1000	68.2% (57.5%)	B,C, 1320~1120	B,C, 1220
여수 상촌 II	II-2호 묘역지석묘	·	B,P 3000±50	95.4%	B,C 1400~1050	68.2% (63.9%)	B,C, 1320~1130	B,C, 1225

16) BP28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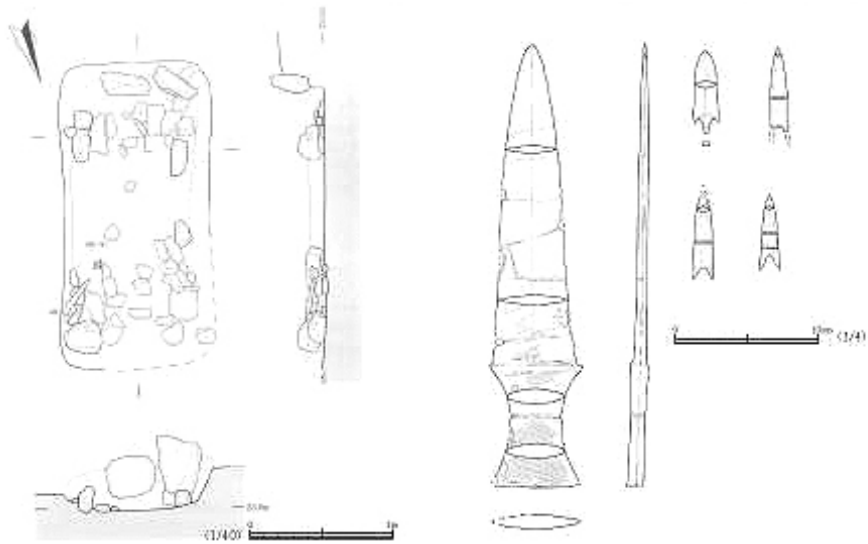
17) 장흥 송정 가운 서지구에서에서는 흑색마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유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원형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토기는 초기철기시대에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시기가 가장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며, 이중구연단사선토기의 형식은 IVC식으로 청동기시대 전기말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과정인 호남 IV기에 출토되는 토기이다. 그러나 석실 내부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파형동검은 경부와 기저부, 하단부 일부만 남아 있으며, 경부에 홈이 있는 것이다. 비파형동검의 유입에 대해서는 기원전 12세기설(이영문 2000)과 기원전 8세기설(강인욱 2005)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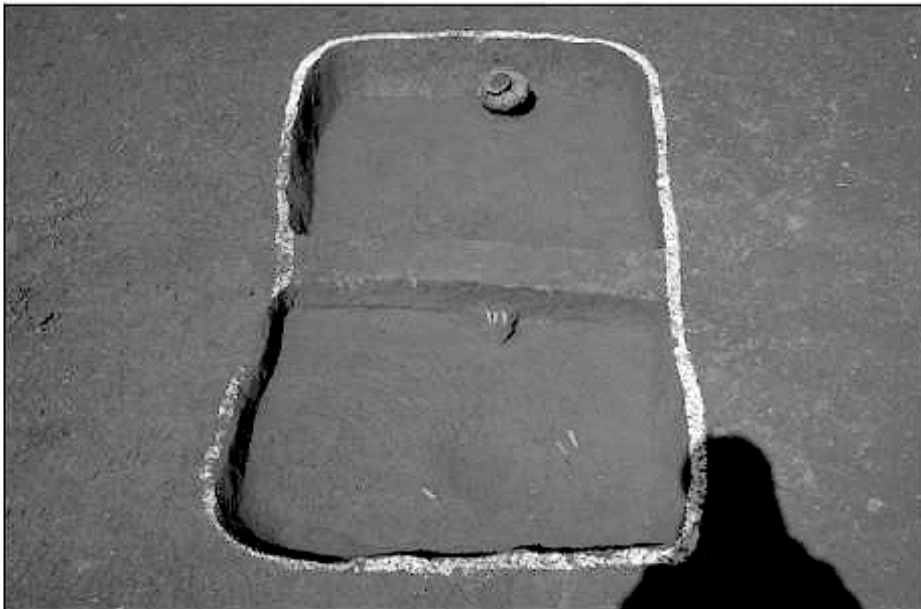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지식묘 주변이나 석곽내부에서 공열문토기나 공열+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된 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지식묘 주변에서 수습된 경우가 많고 공열문토기는 후기인 송국리유형 주거지 등에서도 출토사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기의 출토만을 두고 전기로 소급시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한 적량동 2호는 지하석곽형으로 축조 순서상으로 볼 때도 중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김승옥, 2007).

〈표 11〉 전남지역 청동기시대전기토기 출토유적(분묘·분묘주변)

유적명	유구	하부구조		출토유물
		형식	규모	
여천 적량동 상적지석묘	14호석곽 주변 적석사이	석곽형	160×45×22	공열문토기1
	2호 석곽 주변 적석사이	석곽형	500×250×20	이중구연단사선토기1
여천 월내동 지식묘	8호석관 내부	석관형	158×45×35	구순각목+공열문5
	9호석관 내부	석관형	177×51×30	공열문토기3, 구순각목+공열문토기1
	10호 주변	석관형	103×20×18	공열문토기1
	11호 및 주변	석관형	151×35×38	공열+구순각목토기3 공열문토기2
	13호?	석관형	120×30×40	공열문토기1
	23호 주변?	석관형	140×30×40	공열문토기1
고흥 석봉리·중산리지석묘	주변수습	.	.	공열문토기3
화순 대신리 지식묘	채석장	.	.	삼각거치문토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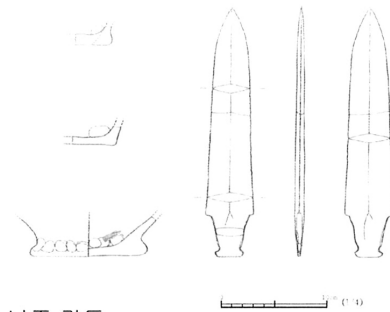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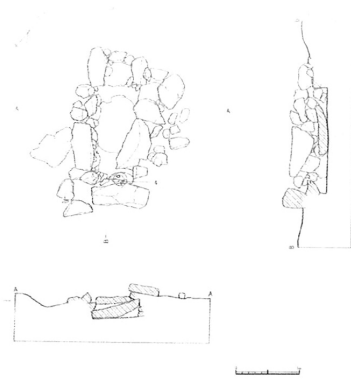


순천 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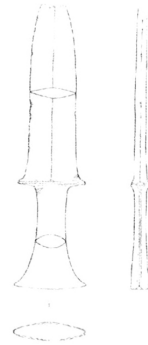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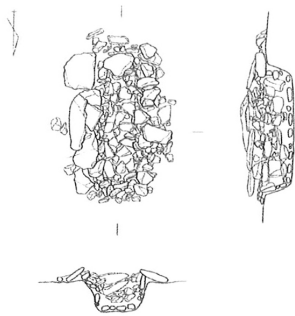


나주 장동리 1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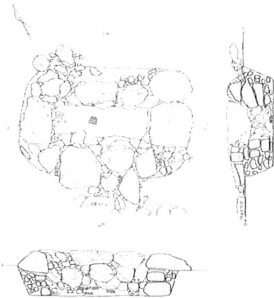
그림 8.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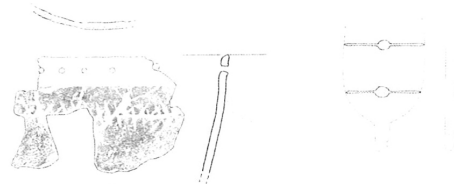
나주 랑동



장흥 신평



장흥 갈두 210호 지석묘



여수 상촌 II 2호 묘역지석묘

그림9.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분묘 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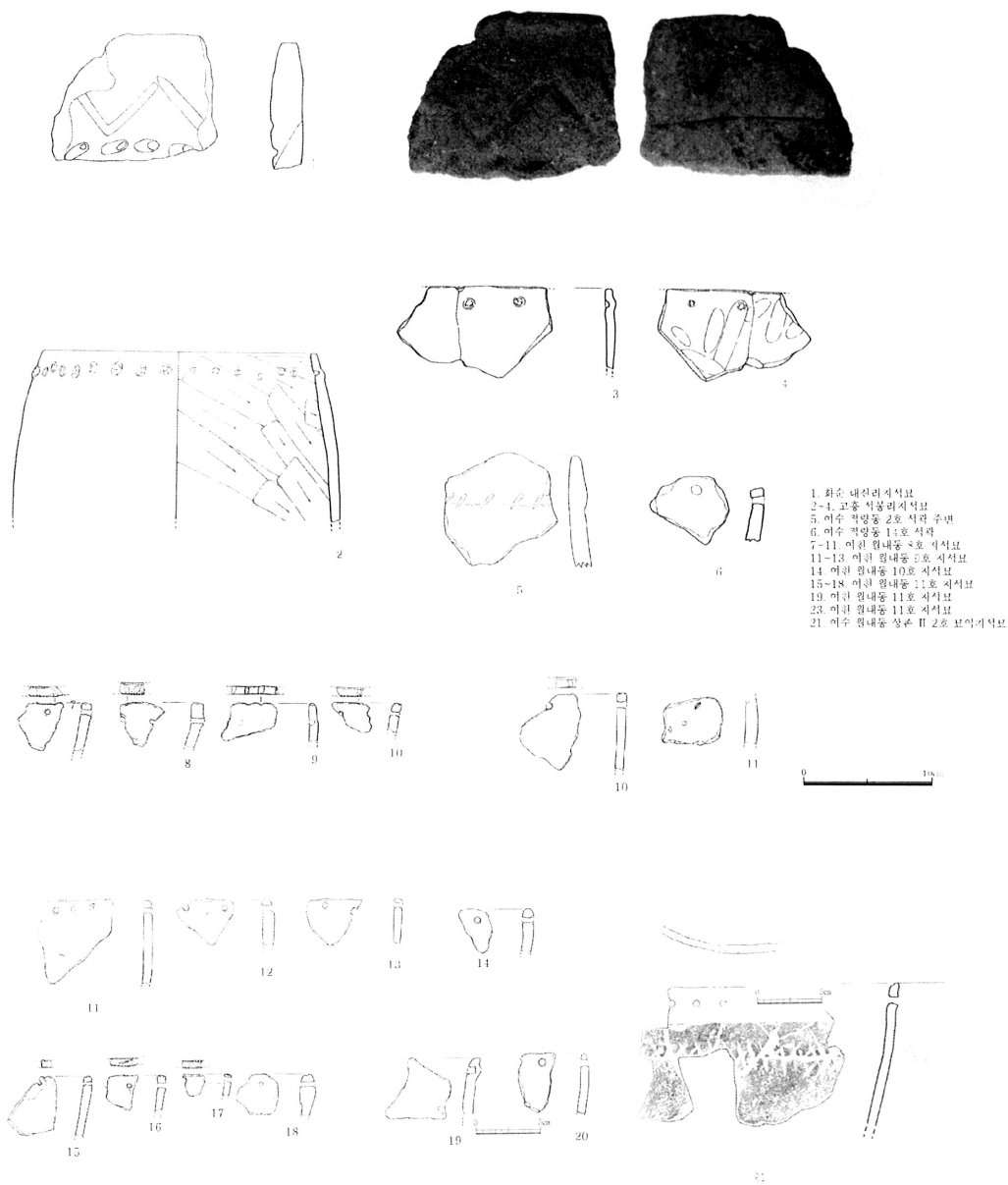


그림 10. 전남지역 청동기시대전기토기 출토유적

3.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변천과정

필자는 2010년 논문에서 호남지역을 4기로 구분하였다(홍밝음 2010). 1기와 2기의 유적은 주로 전북지역에서 확인되며 전남지역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주 매성리 재성 1호와 순천 마륜 I-2호 주거지를 볼 때 호남 2기부터 가락동유형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주 횡산 1호를 볼 때 이 시기부터 역삼동유형의 주거지도 축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남 3기의 주거지로는 광주 용두동 2호·5호·6호, 보성 옥평리 1호, 여수 월내동 상촌 II지구 1호·2호, 함평 고양촌 2호, 순천 마륜 I-3호, II-1호 등이 있다. 이 시기는 만경강 유역권에서 출토된 가락동유형이 영산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¹⁸⁾이다. 이 주거지들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IIIA식, IIIC식과 IVA식, IVB식, IVC식으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구순각목문토기이다. 단사선시문위치는 A식, B식과 C식이 모두 출토된다. 이중구연길이는 III식과 IV식만 출토된다. 주거지 평면형태는 장방형, 세장방형, 초세장방형이 확인되며 노지는 0~5개 이다. 벽구의 형태는 ㄱ자, ㄴ자, ㄹ자이며 벽체시설도 일부 확인된다.

호남 4기의 주거지로는 함평 고양촌 5호, 보성 옥평리 2호, 함평 신흥동 4호·6호·8호·10호, 광주 용두동 3호, 구례 봉북리 1호가 있다. 이 시기에 출토되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IVC식이다. 주거지 평면형태는 원형이나 방형이며 장폭비는 1:1.1을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함평 신흥동주거지를 볼 때 1:1.5를 넘지 않는 장방형주거지도 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지는 1개 정도 확인된다. 벽구와 벽체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기는 주거지의 장폭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주로 원형이나 방형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형 주거지와 공존한 시기로 여겨진다¹⁹⁾.

분묘유적은 분묘유적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AMS측정자료로 시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나주 장동리 토광묘와 순천 남가 석곽묘는 출토 유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로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AMS측정자료 상 청동기시대 전기로 여겨지는 분묘들은 분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 보다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18) 담양 성산리 수혈에서 출토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IC식 호형토기로 2기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에 가락동유형이 영산강유역권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 이 시기는 송국리유형과 공존하지만 여전히 청동기시대 전기의 요소가 다수 잔존한다. 따라서 시기는 송국리유형과 같지만 전기 4기로 한다.

V. 맺음말

전남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조-전기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김규정(2011), 홍밖음(2010) 등에 의해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자료가 적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가 청동기시대 조기와 병행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호남지역에서 AMS가 측정된 신석기시대 말기유적은 광주 노대동유적과 순천 마륜유적이 있다. 광주 노대동유적은 AMS의 측정치가 이르고 이중구연의 상면이 A~D형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말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각목돌대문토기는 순창 원촌유적에서만 확인이 되었다. AMS 자료로만 볼 때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순천 마륜 1호와 순창 원촌 1호의 연대가 서로 중복되어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은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으로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지는 현재까지 17유적 52기가 출토가 되었다. 아직까지 전남지역에서는 익산 영등동 I-1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IA식의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출토가 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는 호남 2기에 해당하는 유적부터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주거지에서 토광형노지가 다수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역삼동 유형이 전남지역에 호남 1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청동기시대의 전기유적은 호남 2기부터 확인이 되기 시작하며, 호남 3기 이후 영산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으로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후 호남 4기가 되면 주거지의 규모가 축소되고 IVC식의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출토되면서 청동기시대 전기는 청동기시대 후기로 점차 옮겨가게 된다.

분묘유적은 분묘유적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AMS측정자료로 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주 장동리 토광묘와 순천 남가 석곽묘는 출토 유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로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AMS측정자료 상 청동기시대 전기로 여겨지는 분묘들은 분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 보다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5, 「한반도 출토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지역성 대하여」『한국상고사학보』49, 한국상고사학회.
- 김규정,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검토」『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제3회 워크숍-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취락구조의 (재)검토-』, 韓國靑銅器學會.
- 강인욱, 2005, 「한반도 출토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지역성 대하여」『한국상고사학보』49, 한국상고사학회.
- 김규정, 2011, 「湖南地域 靑銅器時代前期文化의 特徵」『한국청동기학보』9, 한국청동기학회.
- 金貞愛, 2007, 『求禮 鳳北里遺蹟』, 求禮郡·(財)南道文化財研究院.
- 金鍾文·金奎正·金大聖, 2007, 『全州 孝子 4遺蹟』, (재)전북문화재연구원·대한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 金承玉,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韓國考古學報』60, 韓國考古學會.
- 金壯錫, 2000, 「혼암리 유형 재고 : 기원과 연대」『嶺南考古學報』28, 嶺南考古學會.
- 손준호, 2007, 「마제석족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韓國考古學報』62, 韓國考古學會.
- 송현경, 2012, 「신석기시대 남부지역 후·말기 이중구연토기의 전개과정」, 『한국신석기연구』23, 한국신석기학회.
- 安在皓, 1990, 「南韓 前期 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영문,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호남고고학보』9,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1,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묘제의 양상」『문화사학』35.
- _____, 2000, 「한국 지식묘 연대에 대한 검토」『선사와 고대』14, 한국고고학회.
- 이형원, 2002, 「韓國 靑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7, 「湖西地域 可樂洞遺型의 聚落構造와 性格」『湖西考古學會學術大會 第15會 湖西地域 靑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湖西考古學會.
- _____, 2009a,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9b,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한국상고사학보』43, 호남고

고학회.

千羨幸, 2003, 「無文土器時代 前期文化의 地域性研究-中西部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천선행, 2007,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과 시간적 범위」『한국청동기학보』1, 한국청동기학회.

_____, 2010, 「신석기시대 후말기 이중구연토기 형성과정 재검토」『한국신석기연구』20, 한국신석기학회.

崔完奎 · 金鍾文 · 金奎正, 2000, 『益山 永登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益山.

平郡達哉, 2011, 「남한지역 출토 가지무늬토기에 대한 기초적 연구」『영남고고학』57, 영남고고학회.

黃在焄, 2005, 「韓國 西南部地域 磨製石鏃의 變遷過程」, 全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황재훈, 2006, 「전남지역 지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한국상고사학보』53,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12, 「섬진강유역 지석묘의 전개과정」『한국상고사학보』75, 한국상고사학회.

洪 밝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 36, 호남고고학회.

安在皓 · 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의 文樣編年と地域相」『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